

유통·관광·교통 인프라 차이 만큼 돈 빠져 나간다

수도권 이어 영남권까지...지역자금 유출 실태와 대책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은 광주·전남에서 이미 예상됐던 문제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역 간 고속도로와 철도 시설이 좋아지면서 유통 및 관광 서비스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남지역이 호남지역 소비자를 흡수하는 '지방 간 자금역외유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호남의 발 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지역으로까지 역외 유출이 확대되면 SOC 확충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구-부산 대형 쇼핑 센터 공세=광주 지역민의 대구-부산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 대형 쇼핑 시설이 앞다퉈 생겨나고 교통시설도 나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대구신세계백화점은 영업면적 10만3000㎡(3만1200여

지역간 도로·철도 시설 좋아져
영남 쇼핑센터 호남 소비자 흡수
차별화된 관광코스 개발하고
농수산물 등 상품 다변화 필요

평)의 최대 규모 백화점이며,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1930년대 상하이 골목 분위기를 연출한 맛집 거리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영업면적은 백화점(14만562㎡)과 센텀시티몰(5만7851㎡)을 합쳐 무려 19만8462㎡에 이른다.

현재 광주 롯데와 신세계 2곳의 백화점 판매시설은 각각 4만3000㎡, 2만6000㎡

◆ 광주

구분	비율(고객수)	비율(매출액)
서울	5%	2%
인천/경기	5%	2%
대전/충청	2%	1%
광주/전라	77%	88%
부산/경남	1%	1%
대구/경북	1%	0%
제주/기타	10%	6%

으로 총 6만9000㎡에 그친다. 반면 대구는 백화점 7곳의 판매시설 면적은 총 29만3000㎡이며, 부산은 백화점 6곳의 판매시설이 총 43만9000㎡이다. 광주(151만여명)의 인구에 비해 대구(252만여명·1.7배)와 부산(351만여명·2.3배)의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백화점의 판매시설만 놓고 봤을 때 유통시설 인프라는 광주에 비해 대구가 4.2배, 부산이 6.3배나 많다.

■ 2017년도 신세계백화점 지역별 고객 비율 (단위:%)

◆ 부산 센텀

구분	비율(고객수)	비율(매출액)
서울	8%	3%
인천/경기	8%	2%
대전/충청	2%	1%
광주/전라	3%	2%
부산/경남	60%	80%
대구/경북	9%	7%
제주/기타	10%	6%

◇다양한 소비자를 유입해야=판매시설 부족뿐 아니라 광주지역 유통업계의 지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영남지역으로의 역외유출을 부추기고 있다.<표 참고>

지난해 광주신세계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의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전남 지역민 77%, 제주·기타 10%, 서울 5%, 인천·경기 5%, 대전·충청 2%, 부산·경남 1%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지

◆ 대구

구분	비율(고객수)	비율(매출액)
서울	7%	3%
인천/경기	7%	3%
대전/충청	3%	1%
광주/전라	1%	1%
부산/경남	8%	4%
대구/경북	64%	84%
제주/기타	9%	5%

역민의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신세계 센텀시티의 지난해 고객 비율은 부산·경남 60%, 제주·기타 10%, 대구·경북 9%, 서울 8%, 인천·경기 8%, 광주·전라 3%, 대전·충청 2%였다. 대구신세계백화점은 대구·경북 64%, 제주·기타 9%, 서울 7%, 인천·경기 7%, 대전·충청 3%, 광주·전라 1% 등이었다.

부산과 대구 지역 백화점들도 해당 지역

민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수도권과 경기도 등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부산과 대구지역 백화점들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소비자의 매출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고속철도 개통 후 우려됐던 수도권으로의 역외유출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광주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광주와 비슷하게 지역자금 역외유출 위기에 놓였던 대구가 동대구역 KTX 역세권을 개발해 수도권과 경기도 소비자를 대구로 이끌고 있는 점은 광주로서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면서 "지금 당장 대형유통판매시설을 늘릴 수 없다면, 타지역 소비자를 유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물 등을 만들어내는 상품 다변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기재부 방문 현안사업 국비 반영 요청

예산실장·심의관들 면담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활동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10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방문에 맞춰 구윤철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심의관들을 면담하고 2019년도 국비지원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통합센터 플랫폼 구축,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미디어아트 창의 벨트 조성,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등 현안이 담긴 책자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과장, 담당 사무관을 만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취임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당선인 신분으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고희권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광주가 오랜 소외와 차별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이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호화 논란 한옥공관 용도 전환·매각"

"간부급 인사 반드시 성과 반영"

'호화 공관' 논란이 일었던 전남도지사 공관이 폐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관 대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10일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주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도지사 한옥 공관은 상징성이 있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며 이같은 공관 활용 방안을 밝혔다. 김 지사는 "한옥 공관은 공간이 커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절감방안을 검토했지만 한계가 있어 공관 용도로는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매각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남지사 공관은 지난 2006년 무안군 삼향면 도청 인근에 34억원을 들여 안채·사

랑채·문간채 등을 갖춘 전통한옥으로 지었다. 지사거주 공간(445㎡ 규모)과 외부 손님 숙소, 회의 공간(650㎡ 규모)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지사는 인사 원칙을 밝히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불필요한 보고나 회의, 과잉 의견 등을 하지 말고, 직원 의견을 수렴해 근무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자"며 "이를 위해 예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업무까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완할 것과 과감히 폐지할 것 등을 가려 종합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 원칙에 대해 김 지사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 일할 마음이 없어야 한다"며 "업무의 성패를 떠나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균형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부 공무원 인사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상생협력도 강조했다. 광주·전남·부산·경남이 '동서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남해안광역경제권 구축 및 남해안관광벨트 종합개발계획 구상 등을 통해 한반도 신경계 구축으로서 공동 번영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선거 전부터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잇따라 지역 간 정책 협약을 하고 상생 논의의 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해왔다. 그는 이날 실무진에서 4개 시·도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도의원이 제기하는 민원 등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해를 잘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동반자적 유대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9일 오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도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내도 일자리 만들어 달라"...이재용 "더 열심히 하겠다"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서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손을 잡았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9일 오후(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새 현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약수'했다. 이 부회장은 준공식 시작 전부터 행사장 앞에서 대기하다 문 대통령이 도착하자 수

차례 두드러지게 깎듯이 인사했고, 문 대통령의 동선을 직접 안내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흥현철 삼성전자 서남아 담당 부사장을 따로 불러 5분간 접견하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 부회장은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기업과 경제협력 회복 및 고용 증대로 코드를 맞추는 '경

제 대통령', 해외투자 현장에서 기업과 호흡을 함께하는 '세일즈 대통령'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재판 중인 이 부회장과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 관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하세요! 푸~우~욱~

일본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일 연휴 기간, 연인과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모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억 원 여행보험
-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드라이 프링) & 코코넛 비누 1SET(포장) • 필리핀 현지 공항(700세스/1인실) 포함
- ◆ 호텔(2인실) 무료강습, 라우리무 디스크버라이어티,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 시내관광(아일랜드) 심자기, 산베르르요세 또는 마탄성당, 마탄수리안 등
-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도 중식)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 대만, 화련,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텔)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기간별 기내(여행상품) 1억 원, 국내상품 5천만 원, 관광진흥회(기금, 관광 및 무부 이용료, 유품유류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별 기금 ◆ 예약 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인), 기사/가이드 명의로, 선별관광, 각각 비자(비행)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광주일보 제20791호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3